

8월 20일 고린도후서 5:14-17 변화시키는 힘

전도의 열정이 있던 의사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유대인 환자를 전도했습니다. 유대인은 복음을 조용히 다 듣고 난 후에,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 처럼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고 믿는 건가요?” 여러분 같으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은 죄와 당신이 지은 죄였습니다. 내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는 내가 지은 죄, 당신을 파멸시키는 당신의 죄, 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 유대인은 아주 놀란듯이 의사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진지하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인루이스를 보면, 서쪽 서버브 쪽은 살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세련되고 좋은 옷을 입었으며 펜츠는 차들을 몰고 다닙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동쪽 다운타운쪽으로 가보면, 집들도 낡았고 거리도 지저분하고 사람들도 좀 무식해 보입니다. 또한 범죄율도 높습니다.

가난하고 낡고 지저분한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세련되고 부유하고 깨끗한 서버브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인들입니다.

다운타운에서는 죄가 겉으로 드러났다는 것이고, 서버브에선 마음 속에는 죄가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차이 뿐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속에 있는 죄를 행동으로 옮긴 죄인들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속에 있는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페르샤인들이 사용하던 사형도구였다고 합니다. 페르샤인들은 사형수들을 죽일때 절대로 피를 흘리며 죽이지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은 신성한 것인데, 땅에 피를 흘리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흉년이 든다는 미신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에게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더 고통스럽게 사형시키는 법을 고안해 냈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형틀이었답니다. 그것이 로마시대 까지 이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하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래로, 이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형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진리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믿을 때에만, 이 시대나 우리 삶이, 참된 방향과 목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세상에 휩쓸려서 갈팡질팡하며 헤메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생각이나 행동이 십자가라는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울 사도에게도 그 인생의 중심, 그 믿음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말씀 중의 한 구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많은 대적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주위에 많은 대적자들과 비판자들,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바울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도하니까,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교회 안에서, 바울을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하면서 비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13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에게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바울의 대답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열심을 다해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허황된 자기만족과 교만에 빠져서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설쳐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허영에 가득찬 열정으로, 자기만 예수 믿는 것처럼 교만하게 설쳐댄다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같으면, 때로는 잘못된 열심이나 자만에 빠져 교만하게 설쳐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에 우리 스스로, 내 열심이 잘못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자만에 빠져서 설쳐댔다가는, 나와 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 미쳤다고하거나, 허황된 자만에 빠져서 자신을 높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14 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비난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미친 자가 아니라는 기준, 잘못된 열심으로 자만에 빠져있지 않다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미쳤다 혹은 자만심에서 나온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대로 판단한 육적인 관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 옛 사람 사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14 절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이거나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이거나, 모두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신앙의 낙오자가 되거나, 갈팡질팡 방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신앙의 뿌리인 십자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은즉,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이었던 옛사람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죄를 이기려는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과 권세는 우리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이었던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여기에 신앙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죄에 시달려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사실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원히 매장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진리를 의심치 말고 받아들임으로,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함으로, 죄와는 완전히 끝장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롬 6:11 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이와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롬 6:11)

롬 6:11 절 말씀은 제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죄의 유혹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는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창살없는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십자가에 세우지 않고, 율법적인 교리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악의 철장에 가두어 놓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죄와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유케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신이 십자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서 5 장 1 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걸음 더나아가서 15 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때부터 나를 주장하시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죄인이었던 내 자아,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의 지배아래 있던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나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17 절입니다. **다같이 17 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결심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굳센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믿지 않는 굳센 결심은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서너번 하고나 면 끝나버립니다. 십자가 사랑이 마음 중심에 자리잡고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환경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가져다 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환경에 타성이 생겨 버립니다.

그 예로써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처음에는 맛이 있지만, 사흘만 계속 먹어 보십시오. 또 다른 더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나 멋진 자동차를 가졌을 때, 처음에는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과 3,4 개월이 지나면, 그것이 좋은지를 모르는 타성이 생겨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지요.

그러나 굳센 결심과 좋은 환경의 자리에, 변화의 중심인 십자가 사랑을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굳센 결심이나 좋은 환경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십자가 사랑을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 사랑을 중심에 놓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는 14,15 절입니다. **다같이 14,15 절을 읽습니다.**

첫째로 내 “자아, 옛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죄인이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14 절, “한 사람, 예수님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것이라.”
죄인이었던 나, 죄의 지배를 받던 나는 죽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왜 죽이고 소멸시켜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순수한 새 인격을 재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생명력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즉 나를 전적으로 포기하면, 나를 전적으로 부인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옛날의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요?

15 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그 변화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갈 2:20,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고전 15:10,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사랑을 받고 난 후로는, 나의 나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보호하고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나, 헌법 조항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평등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인종이나, 남성 여성의 차이나, 국적이나, 가문이나, 빈부에 의하여 그 평등함이 무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곳 저곳에서 데모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서로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항상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이끌어내 줍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최상의 것을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높여줍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는 혈기 잘부리고 무식해 보이는 가난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평가로 판단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잘 것 없는 어부였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가지고있는 최상의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는 바위같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장점을 보셨습니다. 게바는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신앙고백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이끌어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사랑이란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죄에 지배를 당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한량없는 십자가 사랑을 받고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내 삶의 중심에 두면, 그 십자가 사랑의 힘이, 나를 옛날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